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 “누가복음 7장 24절~50절 강해 설교”

##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50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405장(새찬송 305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5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 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 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하신 다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혹 세례 요한을 폄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헤아려 참작하신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자들이 돌아간 후 사람들에게 요한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할 때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던 목적이 무엇이나?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갈대를 보러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촉감이 좋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옷은 값비싸고 화려한 옷입니다.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간 이유는 세례 요한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설교를 듣고 또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군중들이 알고 기대한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이며 그 임무가 무엇이었는데에 대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하였고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은 메시야가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나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 증명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은 세례 요한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성취된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계시와 구속사적인 기준에서 하신 말씀이지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29절과 30절에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백성들과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부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두 부류는 사회적 신분상으로 격차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각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일생 수많은 선택의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이 미치는 결과가 미미한 것이 있고 결정적으로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온갖 선택에서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단 한 가지 선택을 잘하면 성공적 인생으로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선택입니다.

###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라고 번역된 원어는 ‘아고라’인데, 회집장소, 공회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고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넓은 광장으로서, 토론하고 재판하며 거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북적대었습니다. 이런 장소에 어린이들이 모여서 놀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으로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주로 남자들이 거기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여인들의 애곡하는 소리에 맞추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장터에서 어린이들이 결혼식과 장례식에서의 이런 모습을 흉내 내어 놀았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려면 함께 노는 아이들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합니다. 피리 부는 흉내를 내도 춤추는 아이가 없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는 아이가 없으면 놀

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의 무관심, 무반응의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보이셨으나 그들은 메시야가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이 천국 복음도 기어코 싫다는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의 위선을 질타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거하며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는 것을 가리켜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예수께서 잔치 집에도 가시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미움을 받는 세리의 초대에도 응하셔서 음식 대접을 받으시는 것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 미운 감정, 편견을 가지면 사실을 왜곡시켜 비난합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남에게 누명을 씌워 명예를 훼손케 하고 고통과 손실을 주는 행위는 공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35절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의로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증거입니다.(롬 3:23-26)

### 36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씀하소서 가라사대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돌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세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 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어느 날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시다.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을 초대할 주인은 손님이 들어올 때 환영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길은 먼지투성이며 더욱이 신이라고는 밭창만 붙은 것으로 발에 가죽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발에 물을 부어 씻어주고 향유를 손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당시의 예법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교사이며 사회의 지도자인 랍비가 초대되었을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그가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 불청객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대변에 알아보았습니다. 행실이 좋지 아니하여 나쁜 평판이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때 나쁜 길에 빠져 타락한 생활을 한 것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어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셔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음을 알고 달려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섰습니다.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어느덧 여인은 예수님의 발아래 꿇어앉았고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이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일을 행하는 여자가 행실이 나쁜 죄인인 줄을 알텐데"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바리새인에게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시몬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아주 간략하지만 그러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 둘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리 어려운 질문이 아니므로 바리새인 시몬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제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네 생각이 옳다." 하시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 여인을 향하여 "네 죄가 용서되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 기록이 들려주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깊이는 그 사람의 죄 사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에 비례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여인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님에게 나아 온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몇 번인가는 알 수 없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생활로 인하여 항상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적인 감동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께로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그 심령에 움텄습니다. 그 희망이 이제는 "나는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이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뵈고 경의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인은 소중하게 간직해둔 향유 병을 가지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는 순간 견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동분서주하여 흠과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보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올라 눈물을 쏟게 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수건대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대단한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는데 그래도 자신이 예수님을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것이 예수님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위상에 보탬을 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릇된 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빛을 탕감 받은 두 사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시 화제가치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산하자면 한 사람은 오천만 원 빚졌고 다른 사람은 오백만 원 빚진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두 사람의 금액은 큰 차이가 있지만 갚을 길이 없는 것은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많은 적은 죄인은 스스로 죄를 없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지옥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하시기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였습니다.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빛을 탕감 받고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 고마움을 모른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 받은 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네 판단이 옳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태도와 여인의 태도를 비교하셨습니다. 여인의 행위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서 나온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사랑과 섬김의 행위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라고 변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지난날보다 오늘 현재의 상태를 중요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전도와 봉사의 동기는 죄 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 크기에 비례하여 죄 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의 크기만큼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게 됩니다. 죄의식은 자신의 지은 죄의 분량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중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게 죄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4,15)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크고 많은 것을 깨닫고 이를 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성도일수록 훨씬 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됩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자신의 추악한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자, 뜨거운 사랑과 감격으로 주를 섬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하다."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용서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눈물과 헌신적 행위가 모두 죄 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옷이 젖었기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비가 왔기 때문에 옷이 젖듯이, 여인의 이러한 행위는 죄 사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성경과 교회와 성도가 된 것, 그리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날 주인공은 동네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으로 지목하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세주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온 마음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여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싶습니까? 그 괄호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써넣으십시오. "나는 본문에 등장한 여인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일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나는 이토록 크고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믿으므로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 나는 사람이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